베트남,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세금 신고 · 납부 의무화

(NIPA 하노이IT지원센터)

○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입점 업체의 판매대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내도록 의무화하는 조세관리법 개정안을 발표(2024.11.29.)

개정안의 필요성	·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: 기존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세무당국에 관련 정보만을 제공할 뿐, 세금 신고・납부는 판매자 몫으로 규정됨 (결의 번호: 91/2022/ND-CP) ·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과세신고 규정 미비: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가계 및 개인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, 기존 사업에는 일반적인 규정만 적용중
개정안의 목표	· 전자상거래 분야 조세관리 강화: 세무당국이 전자상거래 수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현재의 세금 손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· 판매자 편의 제공: 판매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·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 절차 부담 절감 · 세금 징수 효율성 향상: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의 거래 및 매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,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 간소화

-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·디지털 플랫폼이 판매자의 거래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·납부·신고를 대신 수행하는 책임·절차 및 적용대상* 규정할 예정

  *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판매자는 이전처럼 세무당국에 매출 자료를 직접 신고 및 세금 납부 필요

○ 한편,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

- 세금 환급 절차 미비로 초과 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,

- 전자상거래 플랫폼 측은 세금신고와 납부를 대신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및 인건비가 발생

※ 참고:

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판매자 (조직 및 개인)은 19만 1천개* 이상으로, 2024년 10개월간 94.5조동** (한화 약 5조원)의 세금을 납부했음

* 베트남 국세청 등록 4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판매자수 통계

** 전년 동기 대비 17% ↑

[참고자료]

■ 베트남,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내년부터 판매자 대신 세금 납부 필수 (2024.11)
https://vnexpress.net/san-thuong-mai-dien-tu-phai-nop-thue-thay-nguoi-ban-tu-nam-sau-4821925.html

■ 베트남 전문가,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메커니즘을 평가 (2024.11)
https://vneconomy.vn/danh-gia-co-che-san-thuong-mai-dien-tu-nop-thue-thay-nguoi-ban.htm

■ 베트남,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금 강화 (2024.12)
https://thanhnien.vn/siet-thue-san-thuong-mai-dien-tu-185241201223958922.htm